

월간국제동향

2016년 2월호



Website: <http://iscenter.or.kr> e-mail: iscenter2015@gmail.com

Address: (150-300) 192-14 Yeongdeungpobon-dong, Yeongdeungpo-gu, Seoul, Korea

Phone: 070-7631-0615

목차

1. Building Bridges	
변화를 만드는 운동	<u>3</u>
2. Exploring Korea	
음악과 투쟁은 공명해야 한다: 콜트/콜텍 노동자 투쟁	<u>7</u>
3. 북과 동아시아	
미사일이 아니다... 지금은	<u>10</u>
4. 식량주권과 농업	
잃어버린 씨앗을 찾아	<u>13</u>
5.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 모델의 힘, 볼리비아 국민투표	<u>16</u>
6. 자유무역협정	
운동 진영 내에서 가부장제에 맞선 도전	<u>20</u>
7. 전문번역	
거대한 자본주의의 전환기 -맑시즘과 “기후가 아니라 시스템 변화를” 3부	<u>21</u>
8. 국제뉴스	
프랑수아 올랑드, 자클린 소바주를 사면하다	<u>27</u>
9. ISC 소식	<u>30</u>
남미연구모임: 볼리비아 대사관 간담회	

1. Building Bridges

변화를 만드는 운동

(맨위로)

에릭만 (노동자공동체전략센터)인터뷰

작성: 송대한 (편집국장,ISC)

번역: 황정은(사무국장, ISC)



송대한 편집국장은 베테랑 시민권운동가인 노동자공동체전략센터 에릭만과 버니 샌더스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초기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버니 샌더스가 민주당 경선에서 승산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현재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샌더스 진영에서도 상당한 힘이 느껴진다. 누가 샌더스를 지지하는가? 샌더스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60년대는 26년의 산물이다. 60대를 26년의 산물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세계 제국주의 지배의 첫번째 돌파구를 만들어낸 것이 1954년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1954년 디엔 비엔 푸¹ 전투에서 처음으로 공산주의가 이끄는 유색 인종, 제3세계, 의식적인 운동 진영의 거센 투쟁으로 제3세계로 향하는 중대차한 전환을 이뤄냈다. 또한 1954년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재판으로 미국의 합법적인 인종차별정책을 종식시켰다. 1955년 에밋 킬 살인사건은 흑인의 의식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였다. 1955년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사건도 있었다. 1955년은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라고 부르는 반둥회의가 열린 해이다.

¹ 디엔비엔푸는 1954년 1차 베트남 전쟁 당시 베트남과 프랑스간의 전투. 이 전투로 인해 프랑스는 베트남에서 철수하고 베트남은 독립을 맞이하게 되었다.

억압받는 사람들은 여전히 억압받고 있으며 억압하는 자들은 여전히 억압자로 남아있다. 하지만 힘의 균형은 움직였다. 백인들에게 냉전이나 베트남, “제3세계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흑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다. 백인들에게 문제는 “백인 우월주의의 제국주의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가?”이다. 이런 시기는 1980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막을 내렸다.

현재 2016년, 36년이 흘렀다. 항상 그랬듯이 현재제에 금이 가 있다. 점령하라 운동, 버니 샌더스 선거 운동, 그리고 블랙라이브스매터 운동처럼 두드러지는 3가지 현상이 있다. 버니 샌더스 선거 운동과 블랙라이브스매터 운동 간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다. 버니 샌더스 선거 운동과 노동자공동체전략센터의 일이나 유색인종회의(People of Color Summit)와는 간극이 크다. 나는 지금 이런 일들을 1980년대 부터, 1990년대부터, 그리고 1996년도부터 해왔지만 한번도 버니 샌더스를 동맹으로 만난적이 없고 점령하라 운동에서 동맹으로 만난적이 없다. 사실 블랙라이브스매터 운동과 연계가 없다는 것은 그가 인종적인 의식이 전혀 없다는 문제를 제기해야 했다. 그리하여 버니 샌더스 현상은 정착자 국가의 백인들이 경제적 불평등에 불만을 가지고 주도하는 것이다. 그들은 암살에 대해서, 대부분이 흑인인 250만 수감자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힐러리 클린턴이 흑인 부르주아에게 다가가는 것은 반동적인 방식이지만 적어도 흑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버니 샌더스는 백인이 다수인 주 출신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인종적인 문제를 의식하려고 하고 인종 문제에 대한 운동을 해왔다.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버니 샌더스가 힐러리 클린턴보다 낫다. 그리하여 현재 코넬 웨스트, 스파이스 리와 같은 흑인 지식인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버니 샌더스가 인종 문제에 대해서 발전되고 있는 모습이 좋다. 미셸 알렉산더가 말했듯이 흑인은 힐러리 클린턴에게 투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도 동의한다. 힐러리 클린턴은 흑인의 친구가 아니다.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힐러리 클린턴의 평형추가 버니 샌더스이다.

우리는 250만명의 해방을 위해 싸우고 있다. 우리는 오바마 정부가 2025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은 1990년대 수준의 50%로 감축시키도록 싸우고 있다. 우리는 경찰국가와 감시 국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싸우고 있다. 하지만 버니 샌더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일언반구하지 않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50%로 줄여야 한다고 말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가 공화당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할 뿐이다. 백인들은 이러한 문제에 신경쓰지 않기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의식이 없다. 지난 25년간 LA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동안 도시교통국(MTA)²에서 그들을 만난 적이 있는가? 시위원회에서 만난 적이 있는가? 경찰 폭력에

² 도시교통국(MTA)은 LA에서 대중교통을 관장하는 곳이다.

대항한 집회에서 그들을 본 적이 있는가? 그들은 정치적 의식이 전혀 없다. 그들은 기업을 미워하지만 제국주의적이고 인종차별적인 국가는 미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버니 샌더스의 지지자들은 동맹이 될 수 있긴 하지만 우리의 운동은 아닌 것이다. 힐러리는 반대자이고 트럼프는 적이다. 버니 샌더스는 약한 동맹 수준이다.

모든 세력 중에서 버니 샌더스의 지지자들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께 투쟁한다. 그렇기 때문에 샌더스가 계속 전지하길 바라며 그만두지 않기를 바란다.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흑인들은 버니 샌더스를 밀어붙이고 있다. 코넬 웨스트, 스파이크 리, 블랙라이브스매터 운동진영이 그들이다. 그들은 힐러리도 몰아붙이고 있지만 그것은 좀 더 복잡한 문제이다.

사회 운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가장 큰 후보는 버니 샌더스라고 보는 것 같다. 노동자공동체전략센터는 경선 기간동안 버니 샌더스 선거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가? 혹은 향후 참여할 계획이 있는가?

노동자공동체전략센터가 더 힘이 있었다면 버니 샌더스 선거 운동에 시간을 더 투자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우리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 우리는 기후변화 투쟁을 위해 파리³에 다녀오는 것을 선택했다. 이는 올바른 선택이었다. 현재 우리는 국방부와 오바마 정부가 1033정책⁴을 철회하도록 요구하는 운동을 하고 있다. 우리는 샌더스 선거 캠프에 1033 정책 철폐 운동에 동참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낼 것이다. 그렇게 대화의 문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추상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10만명의 흑인들이 뉴올리언즈⁵로 돌아와야 한다는 요구처럼 사실에 기반한 요구를 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버니 샌더스와 함께 일을 할것인지 말것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버니 샌더스가 자동차⁶ 문제에 대해서 오바마의 일을 말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우리는 향후 2달~3달 간 LA에서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요구사항을 알릴 계획이다. 우리는 독립적인 정책을 제시해 대선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스스로의 약점을 알고 있다. 미 대선에서 요구하는 것을 해본 경험이 없다는 것이다. 1960년대 흑인 운동은 대통령에게 시민권법 통과를,

³ 2015년 기후변화 회의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다.

⁴ 1033 정책은 미국방부 정책으로 군장비를 민간법집행기관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⁵ 허리케인 카트리나 강타 후에 많은 흑인들은 뉴올리언즈의 집을 떠나 미 전역으로 이주했다. 그들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미정부가 이들이 뉴올리언즈로 돌아올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줘야 하는 돌아올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⁶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 한 수단으로 노동자공동체전략센터는 대중교통증가와 자동차 생산 감소를 요구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미군 철수를 미시시피자유민주당⁷ 인정을, 남부에도 유권자담당자 배치, 쿠클럭스클랜(KKK)⁸의 폭력을 막아주길 요구했다. 필라델피아나 디트로이트에서 조직활동을 한다 해도 주로 필라델피아나 디트로이트에 대한 요구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 케네디 대통령, 존슨 대통령에게 요구 하는 것이다. 오늘날 운동에는 이것이 빠졌다. 우리는 요구 할 수 있는 역사적 역량이 없다. 그래서 지난 7년간 우리는 오바마에게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었다. 이제는 힐러리 클린턴과 버니 샌더스에게 요구 하려고 한다.

그러한 힘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특정한 요구사항이나 정책에 대해 미 전역에서 다양한 사회운동이 진영 간의 연대가 형성되어 있는가? 혹은 기반이 있는가?

현재는 없다. 현재 LA에서 이기기위해 집중하고 있다. 현재 LA통합학구가 국방부의 1033 정책을 통해서 지급받은 무기를 반납하도록 했다. 이런 움직임을 확산시키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승리라고 부를 수는 돌파구는 만들어 냈다고 생각한다. 또한 LA학교경찰부 예산을 50% 줄이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돌파구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다. 어디에서도 경찰이 무기를 반납하도록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긴 것이다. 진정한 승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 정책을 철폐할때 비로소 이뤄진다. 문제는 미국의 큰 단체들은 거의 종교적인 지역 단체이고 전국적인 단체는 민주당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에게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처럼 접합점이 없지만 우리는 조직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상관이 없다. 진정한 문제는 운동진영이 무엇을 할 것인가이다. 운동진영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트럼프, 힐러리, 샌더스 각자가 자신의 강점과 과제를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가 선출된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오바마 집권 기간동안 투쟁력이 적었던 흑인들이 대통령과 연계가 없어져 더 많은 투쟁 공간을 가지게 될 것이다. 각 후보들은 각기 다른 모순과 기회를 대변한다. 그래서 우리는 힐러리가 좋은지 샌더스가 좋은지 논쟁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우리의 정책은 무엇인가?”를 자문해야 한다.

⁷ 미시시피자유민주당은 1964년 미시시피민주당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만들어진 정당이다. 당시 미시시피주 인구의 40%가 흑인이었음에도 미시시피민주당은 흑인의 참여를 금지했다. 그리하여 미시시피자유민주당은 당시 민주당의 존슨대통령에게 그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⁸ KKK는 뽀족한 모자를 써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흑인들을 공격한 백인우월주의 그룹이다.

2. Exploring Korea

음악과 투쟁은 공명해야 한다: 콜트/쿨텍 노동자 투쟁권

(맨위로)

작성: 조이스킴

번역: 김경민(번역팀, ISC)



어느 추운 겨울 아침에, 나는 소모임 멤버들을 만나러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로 나왔다. 우리는 노동자이자 순교자였던 전태일 평전을 읽어왔고, 오늘 장기 노동조합 투쟁에 대해 듣기 위해 콜트/쿨텍 기타 노동자들을 만나러 왔다. 2009년, 한국에 오기 직전에 음악가이면서 사회운동가인 한국계 미국인이 내게 콜트/쿨텍 노동자들이 어떻게 외부하청으로 부당하게 일자리를 잃었는지에 대해 말해준 적이 있다. 6년 반이 지나서야 나는 133일 전에 새누리당 당사 앞에 세워진 천막으로 발을 옮겼다.

콜트/쿨텍 노동자 투쟁은 133일보다 더 오래 되었고, 2009년보다도 더 이전에 시작되었다. 투쟁은 2007년 사전통보 없이 인천 콜트 공장과 대전 쿨텍 공장을 닫고, 중국과 인도네시아에 콜트 공장들을 세우면서 일시 해고한 뒤 이어져온 것이다. 공장폐쇄는 매출액과 순이익 감소로 정당화 되었다. 하지만, 노조의 조사에 따르면 꾸준한 이익을 내고 있었고 오직 2006, 2007년에만 급락했을 뿐이었다. 한국신용평가에서 2006년 가장 높은 AA0등급을 받았음에도 회사는 노동자들에게 경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콜트/쿨텍 노동자 복직 투쟁은 수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즉, 장기 천막 점거, 고공 시위, 단식 투쟁, 문화 연대, 도보 순례, 소송, 국제연대 콘서트 등이 있다. 천막을 향해 가면서 그들이 어떻게 투쟁을 이토록 오래 지속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졌다. 우리는 4명의 노동자들과

함께 천막에 모였다. 노동조합의 방종운지부장은 그들의 법정 투쟁을 기록한 서류들을 넘기며 투쟁에 대해 설명했다. 얼마나 더 그들의 이야기가 반복되어야 할까?

2009년 서울고등법원은 2007년 콜트/콜텍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노동자 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용한 재정난에 대한 주장과는 반대로 회사는 이익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2012년 대법원은 미래의 재정난 가능성으로 해고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법원의 논리는 분명하고 위협한 메시지를 준다. 회사와 법인은 노동자 해고를 추측만으로도 정당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남겨질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장을 해외로 이전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일부 호의적인 판결에도 불구하고⁹⁾, 대법원은 또다시 노동자들의 복직은 콜트 악기제조사에 유의미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할 것이라는 회사측의 해고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했다. 젊음을 바쳐 회사를 일군 노동자들은 사용 뒤 버려졌다. 그들은 대법원 판결에 항소하고 있다.

콜트/콜텍 노동자들은 회사를 상대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대중적 이미지를 훼손한 언론과 정치인들과도 투쟁하고 있다. 동아일보와 한국경제 신문은 2008년과 2014년에 각각 노조 파업과 시위가 콜트/콜텍 공장 폐쇄의 원인이라고 보도했다. 비슷하게도 작년 가을,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 의원은 국회에서 높은 이윤을 창출하는 건강한 콜트/콜텍과 같은 기업이 노조 때문에 공장 문을 닫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보도기사와 당대표 둘 다 회사의 불법 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노동자들이 행동을 취하게 만든 착취 중심의 근로환경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더욱이 노동자들의 부당해고에 맞선 시위와 복직 요구는 공장 폐쇄를 원했다는 논리에 어긋난다.

이토록 편향적이고 잘못된 언론 보도는 콜트/콜텍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를 상처 입히는 것이다. 사람들이 이러한 기사를 읽고 받아들이면, 시민 의식 속에 노조활동은 열심히 일하는 회사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개념이 심어진다. 노조측에서는 동아일보에 대한 판결에서 승소했고 한국경제에서도 항의한 후에 허위보고 사실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허위보고 정정을 동아일보로부터 3년, 한국경제로부터 1년 뒤에 받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노동자들은 대형 매스컴과 고위 공무원들에 의한 허위보고와 거짓정보에 대한 피해를 알리기 위해 힘든 싸움을 지속하고 있다. 쉽지 않은 일임에도 콜트/콜텍 노동자들은 그들의 입장을 고수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김무성 의원이 발언에 사과할 때까지 133일간 진행해온 농성을 계속할 것이다.

⁹⁾ 2010년 인천지방법검찰청은 콜트 악기사의 CEO 박영호를 회사 노조와의 소통을 무시한 죄로 벌금을 부과했으며 7건의 폭력적인 노조 활동 방해로 한 용역 대장에도 벌금형을 내렸다. 2013년 대법원은 박영호를 노조 활동 방해에 대해 유죄 판결 내렸다.

결국 콜트/콜텍 노동자들은 반드시 법원 너머에서 승리해야 함을 보고 있다. 방중운 조합장은 한국 정부조차도 노동자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해결책은 전세계의 음악가들이 함께 나서야 만들어질 수 있다. 정말로 자본의 힘이 법에 의해 보호되고, 인권과 인간 존엄을 대체하는 사회에서, 회사가 법을 어겼을 때, 회사는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해고한 뒤 벌어들인 막대한 이익 중의 아주 작은 일부만을 벌금으로 내면 된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세계로 나아갔다.

2010년 1월, LA의 사회운동가들은 콜트/콜텍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위해 ‘기타의 밤’을 준비했다. 레이지 어게인스트 더 머신의 톰 모렐로, 더쿠의 부츠 라일리, 그리고 미국에서 활동하는 여러 음악가들이 연대와 이익 극대화를 위해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체제를 비판하기 위해 연주했다. 비슷한 연대 행동이 일본에도 있었다. 콜트는 콜트 기타만을 파는 것이 아니라 펜더, 스트라토캐스터, 깁슨과 같은 세계적인 대표 기타 제조사의 기타를 생산하고 수출하고 있다. 한국으로부터 시작된 이 일과 국제적인 운동을 지속해야 한다. 그리고 음악가와 음악을 사랑하는 세계인들에게 그들이 연주하고 듣고 있는 기타는 노동자를 착취하는 제조사들로부터 만들어진 것임을 알려줘야 한다. 음악에 감명을 받는 사람들은 그 음악을 가능하게 만든 노동자들의 인권을 고려해 선택하고 행동해야 한다. 이 진실은 현악기 소리가 공명하듯, 그 소리가 세계에 펼쳐지듯 널리 알려져야만 한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그들의 투쟁은 집으로 돌아왔다.

콜트/콜텍 노동자의 여의도 투쟁 135일이 되는 그 다음 화요일에 모임 멤버는 매주 열리는 노동자들의 ‘문화의 밤’에 참석했다. 그들의 투쟁 속에서 노동자들은 그들의 삶을 바쳐 만들어진 기타를 잡고 콜밴이라는 밴드를 결성했다. 그들은 투쟁과 사회 부조리, 사람보다 이익을 중시하는 체제,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한 법 제도에 대해 연주한다. 두 멤버가 기타를 둘러메고, 30년 동안 콜텍에서 일했던 다른 노동자가 노란 울림통으로 규칙적인 리듬을 만든다. 연주에 뒤이어 GM 군산공장 해고 노동자가 연대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의 투쟁에 대해 말한다. 해고가 주는 충격에 대한 그의 말을 듣다 보니 내 마음에는 우리 안의 연결고리가 그려지기 시작했다. 노동자들은 아버지이고 어머니이며 배우자요 형제자매들이다. 그들의 자식들은 우리의 학생들이고, 우리가 버스를 탈 때 옆에 앉은 아이들인 것이다.

그들은 지금까지 10여년 간을 싸워왔다. 그리고 그들의 투쟁은 개인적인 것으로부터 전국 노동자들을 대신하는 것으로 진화했다. 그들은 악덕 기업과 위험한 노동 개혁에 대항해 싸우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콜트/콜텍 노동자 연대에 함께하기 때문이다

3. 북과 동아시아 미사일이 아니다... 지금은

(맨위로)

폴 리엠(대표, 한국정책연구소)/크리스틴 안 (국제여성평화건기 기획자)인터뷰

인터뷰 및 작성: 송대한 (편집국장, ISC)

번역: 황정은(사무국장, ISC)



(이미지 출처: BBC)

2016년 2월 7일 북한은 로켓을 발사해 성공적으로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렸다.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인 남한은 로켓 발사를 장거리 미사일(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의 장막이라고 비난했다. 폴 리엠은 이번 북의 로켓 발사가 미국의 향후 외교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 했다. 또한 크리스틴 안은 국제여성대표단과 함께한 평화 캠페인에 대해 이야기 했다.

“북이 지난 달 발사한 로켓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니다”라고 폴 리엠은 설명한다. ICBM은 궤도에 올라야 함과 동시에 대기로 재진입해 탄두를 장착한 채 목표물을 떨어뜨려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공위성을 장착해 쏘아올린 로켓은 인공위성을 올린 후 떨어져 생명을 다했다.” 폴 리엠은 로켓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북한만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남한은 평화적인 우주 탐사를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외교적인 돌파구가 부재한 상태에서”이다. 폴은 로켓 기술이 ICBM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강대국이

북한의 경제와 사회를 움직이는 방법 중 하나로 사용하는 것이 북한이 제제와 경제적 고립 하에 쓰러지길 기다리는 전략적 인내이기 때문이다.

많은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는 평화이며 북의 여러가지 행동은 평화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에 미국 정책은 북의 비핵화에 초점을 맞췄다. “미국이 북한과 평화 협정을 체결하고 북이 핵을 포기하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폴에게 물었다. 평화협정 문서처럼 간단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현재 미국회에서 평화협정이 비준되기 어렵고 행정명령이 “불안한 거래”인 정치지형일 뿐만 아니라 평화협정으로 정권 교체를 막지 못한다는 것을 역사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리비아는 핵무기를 포기하고 미국의 동맹국이 되었지만 여전히 정권 교체 타겟이 되고 있다. 그리하여 “평화협정이든 미국과 북한간의 어떠한 종류의 평화 정권이든 북한의 비핵화가 유일한 목적이라면 지속될 수 없다.”

대신, 평화협정은 전략적인 목표의 재조정기에 기반해야 한다. 이러한 “재전망은 미국에서 나올 것이라 보이지 않는다.” 폴은 북과 미국이 중국의 영향력 강화를 견제하고자 하는 것에서 전략적인 접점이 있다고 본다. 폴은 이것이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 한 후에도 남한에 미군 주둔을 수용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가오는 미대선은 북에 대한 미외교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폴에게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과 버니 샌더스가 북에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물었다. 힐러리의 경우 국무장관이었을 당시 북의 정권 교체를 추구했던 반면 폴은 힐러리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냉전을 종식시키는 외교에 기반해 “한반도 분단의 역사적 상황, 분단에서 미국의 역할을 돌아보고 새롭게 한반도 정책을 세울 것”을 바란다. 이러한 희망은 힐러리가 영부인이었을 때와 국무장관이었을 당시 ‘북한과의 양자회담 가능성에 대한 통찰력’에서 본다.

폴이 생각하는 버니 샌더스의 외교정책은 간단하다. “샌더스가 생각하는 국내사회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군비 지출을” 줄여야 한다. 이러한 감축을 정당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군사 해결책이 아닌 외교적 해결책을 추구하는 것이다. “국내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샌더스는 양자간 회담을 포함해 북한과의 외교 관계의 모든 방면을 이용하고자 하려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 미국의 대북 정책은 정권 붕괴를 위한 전략적인 인내에서 영구 평화협상으로 변할 것이라는 희망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세계적인 인식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2015년 5월 30일 15개국의 여성 대표가 모여 국제여성평화걷기에 참가해 북에서 비무장지대(DMZ)를 가로질러 한국전쟁 종식을 요구한 것이다. 국제여성평화걷기에서는 평화와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심포지엄을 진행했고 남북 문화 교류가 포함되어 있었다.

국제여성평화걷기를 한지 1년이 지난 현재, 크리스틴과 국제대표단은 계속적으로 평화를 이야기한다. 북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한겨울에 석유 운송”을 막고, F-22를 날리고, 경제 제재를 통과시켜 “정권 붕괴 분위기 조성”을 통해서만 돌파구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은 크리스틴 안에게 분명하다. 이러한 방식은 북한의 인민들의 일상을 악화시키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결”하지 못하도록 한다. 해결은 평화에 있다.

국제 대표단으로 미의회, 유엔, 미국 전역의 도시에서 발언하면서 더 많은 대중들을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과 남한 여성을 포함하는 해결책을 위해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 이는 북한과 남한의 여성이 서로 만날 수 없지만 국제 대표단과는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평화를 위한 기반을 만들고 있다. 미국친선위원회와 국제평화걷기는 한국평화네트워크를 구성해 한국과 미국, 평화 단체, 인권 단체를 모아 미국이 “다른 곳으로의 출구 모색”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출구”는 북한, 남한, 미국 간의 대화를 시작하는 수단으로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 작업을 이용하고자 한다. 평화 협정을 요구하면서 “0에서 9”를 요구하는 대신 비무장지대에 있는 120만개의 지뢰를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오바마정부가 평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작은 한 걸음을 떼는 것이다. 콜롬비아의 경우에서 희망이 보인다. “지뢰 제거 과정을 통해서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과 정부는 힘을 모았다. 평화를 만드는데 있어서 실제로 흥미있는 과정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이 크리스틴 안과 국제여성평화걷기 대표단이 2020년 까지 평화협정을 이루고자하는 작은 발걸음이다.

4. 식량주권과 농업 잃어버린 씨앗을 찾아

(맨위로)

한영미(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강원도연합 전사무처장) 인터뷰
황정은 (사무국장, ISC)



(출처: <http://permaculturenews.org/>)

몬산토, 신젠타, 다우, 듀폰, 베이어, 바사프. 익숙한 이름도 생소한 이름도 있는 이들의 공통점은 초국적 종자기업이라는 점이다. 종자뿐만 아니라 농약과 화학 비료 등 농업 투입재를 연구개발하고 판매하는 기업이다. 최근 이 이 기업들이 인수 합병을 통해 몸집을 키우는 추세를 보인다. 최근 다우사와 듀폰사가 합병을 통해 듀폰-다우가 탄생했고 캠차이나가 신젠타를 인수했다. 몬산토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기업과의 합병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듀폰다우-캠차이나/신젠타 - 몬산토 - 베이어-바사프 5대 기업이 민간 농업 연구 부문의 75%, 농화학품 판매 75%, 종자 판매 63%를 차지하고 있다¹⁰. 이러한 점유율은 유전자 조작 작물이 도입된 후 20년동안 약 200여개의 종자/농약 기업을 인수해 가능해졌다.

이런 인수합병 추세의 문제는 농업 투입재가 소수의 손에 독점되는 것이기 때문에 식량 공급의 기반을 약화시킨다는데 있다. 또한 기업들은 배타적인 독점 특허가 혁신의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농화학 기업이 소수가 되고 몸집을 키우면서 실제로 연구개발 기업의 수는 1995년 35개사에서 2012년 18개로 감소했다. 몬산토의 경우 인수합병을 통해 농민들에게 더

¹⁰ Sino-Genta?, etc Group <http://www.etcgroup.org/content/sino-genta>

많은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북유럽에서 실행한 5개의 연구 결과 재배가능한 품종이 감소했고, 기업에게 이익이 되는 작물이나 하이브리드 작물에 집중도가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독점이 강화되면서 종자의 가격 또한 상승했다. 예를 들어 1990~2010년 미국에서는 농업 투입재의 가격 상승이 농산품의 가격 상승에 비해 높았고 종자의 경우 거의 2배가 상승했다.¹¹

초국적 기업의 인수 합병의 문제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잘 느껴지지 않는다. 실제로 농업투입재를 구입하는 농민이라면 그나마 종자의 가격 인상이나 재생산이 되지 않는 유전자 조작 종자의 문제를 피부로 느끼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음식을 생각해보라. 음식을 만들기 위해 이런 종자기업에서 판매하는 유전자 조작 종자에서 싹을 틔워, 이런 종자기업에서 판매하는 비료와 농약을 치며 길러낸 농산물을 사용한다. 그렇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종자기업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사실을 좀 더 알아보고 대안에 대해 듣기 위해 한영미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사무처장을 인터뷰했다. 우리가 먹는 대다수의 음식이 이런 농산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배경에 대해서 물었다.

“2차세계대전 이후 무기를 생산해서 팔던 기업들이 같은 원료를 사용해서 농업에 사용하는 농화학기업으로 변신했다. 농약과 비료를 팔고자하는 기업의 이해와 다수확을 목표로하는 국가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국가정책차원으로 농민들에게 종자개량을 강제했다. 녹색혁명형농업으로 재편된 농민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또 IMF때 국내종자기업들이 다국적기업에게 매각된 이후론 농민들은 다국적기업들의 제품을 구매해서 농사를 지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종자기업에 예속된 농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에서는 토종씨앗 지키기 운동을 진행해왔다. 한영미 전 사무처장은 토종씨앗이 문제 해결의 고리이자 대안이라고 설명한다.

“농업 투입재를 구매해야 하는 구조 속의 농민들은 생산비가 높아지고 농산물 가격이 보장되지 않으면서 빚더미에 앉게 되어 농촌을 이탈하는 농민이 늘어나 현재 250만의 농민만이 남아있다. 이런 악순환의 시작이 어디인가? 고민에 대한 해답은 종자였다. 악순환의 시작과 끝이 바로

¹¹ Breaking Bad: Big Ag Mega-Mergers in Play Dow+DuPont in the Pocket? Next: Demonsanto?
<http://www.etcgroup.org/content/breaking-bad-big-ag-mega-mergers-play>

종자에 있다고 생각했다. 다수확, 기능성품종들인 F1 종자¹²를 심으면서 악순환이 시작되었고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토종씨앗이라고 생각했다.”

토종씨앗은 1회용이고 환경변화 적응력이 낮은 유전자조작 종자와는 다르게 품종이 다양해 환경변화에 적응력이 높고 자가 채종이 가능해 다시 심을 수 있다. 이런 토종씨앗을 찾아내고, 종자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하기 위해 채종포를 운영하고, 토종농산물의 길러 판매하며 알리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토종씨앗 지키기 운동은 농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참할 경우 영향력이 더 커진다. 한영미 전사무처장은 토종씨앗운동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는 운동이라고 말한다. “토종으로 밥상을 바꾸어 나가고자 하는 소비자가 조직되면 생산자가 변하고 가공생산자도 함께 변한다. 토종씨앗지키기운동의 가장기본은 토종농산물을 많이 먹을 수 있도록 밥상을 바꾸는 일이다.”

인간이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에너지원이 되는 식량의 시작과 끝이되는 종자는 현재 대기업의 손에 집중되어 이윤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농경생활을 시작한 이래로 계속 이어온 종자는 본래 재생산이 가능한 것이지만 이마저도 조작을 통해 항상 새로운 종자를 구매하도록 만들었다. 농민만이 아니라 매일 우리가 먹는 식량이 어디서 어떻게 생산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면 잃어버린 종자를 찾을 수 있다. 밥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¹² F1종자는 잡종1세대(first filial generation) 종자로 특징은 다음 세대로 우수한 형질이 유전되지 않고 1세대에서 끝난다. 그래서 1회용 종자라고 부른다.

5.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 모델의 힘, 볼리비아 국민투표

(맨위로)

아이마라 얀께/까롤라 아라니바르
번역:홍정희(번역팀, ISC)



2016년 2월 21일, 헌법 168항을 수정할지 여부를 650만 볼리비아 국민에게 묻는 투표를 국내외적으로 진행했다. 이것이 승인되었다면, 다민족 국가인 볼리비아는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과 알바로 가르시아 리네라 부통령이 4선을 위해 대선에 출마할 수 있었을 것이다. 공식적인 투표 결과는 51%가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투표의 패배로 사회주의운동당(MAS)은 다음 선거를 위한 새로운 지도자를 찾아야만 한다. 지금까지 현 대통령과 부통령은 2005년 54%의 지지를 받으며 집권하여 2009년 64%로, 2014년 60%의 지지를 받으며 재선에 성공했다. 2008년에는 신임 여부를 묻는 국민 소환 투표에서 67%로 재신임 되었다. 최근의 국민투표 패배에도 불구하고, 볼리비아 국민의 49%는 여전히 모랄레스를 지지하고 있다.

변화를 위한 중재위원회(CONALCAM)는 2015년까지 애국의제가 완전히 구현 될 수 있음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재선을 고려했던 모랄레스 대통령과 리네라 부통령을 초청하였다. 국민투표는 선거운동 제외하고 1억 5300만 볼리비아노(약 2000억원)가 들었고 국가가 해결해야 할 수많은 필수품을 고려할 때 이는 상당한 비용이다.

선거 전에 야당은 대통령과 전 여자 친구를 둘러싼 부정부패 고발과 부통령의 대학 학위 논란, 엘 알토 정부청사 화재로 공무원 여섯 명 사망사건을 들어 대통령을 공격했다. MAS의 지지도

하락의 또 다른 지표는 이시보로 국립공원에 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하는 차파레 원주민 탄압에 대한 시위와 항의로 나타났다.

원주민기금 위기 또한 국가에 큰 타격을 입혔다. 국유화 이후, 탄화수소 기금의 5%는 원주민과 토착 농업 지역과 국가에 쓰였다. 사회 운동 진영은 권리 침해, 자율성 손실 등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했는데, 오히려 자금 경영과 횡령에 갈팡질팡 하였다. 역설적으로, 재정에 여유 있을 때 정부는 지지 기반인 그들의 요구를 외면했다. 세계정세가 지방 및 지역 차원의 사회 운동에 반영되었다. 정직, 사회 양심, 국민의 권리가 모든 방면에서 부의 축적에 상용화되었다. 즉, 부패한 지도부, 지방자치단체, 정당, 수입 업체, 특히 농산물과 석유, 광업, 생산품과 기술 생산, 먹거리 다국적 기업 모든 방면에서 말이다.

부패에 대한 가장 치명적인 비난은 모랄레스 대통령 정당을 향한 것이었다. 대통령의 전 여자 친구 가브리엘라 사파타를 둘러싼 추문이 대통령 개인적인 지지도에 영향을 미쳤다. 대통령은 그녀와의 사이에 아이가 있음을 인정했다. 사파타가 주요직에 있었던 중국 정비업체 CAMC가 입찰경쟁도 없이 500만 달러 규모의 국가 사업을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10년 임기동안 한 번도 부패 스캔들에 휘말리지 않았던 모랄레스의 첫 부정부패 사건이다.

또 다른 가시적인 문제는 정부의 환경 문제 담론과 토지, 지상, 지하, 대기의 집중적인 사용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 성장 모델 사이의 부조화이다.

정부는 70년대 독재나 90년대 금융위기를 겪지 않은 세대들 사이에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유포된 허위정보를 맹렬히 비난하며 대응했다. 그들은 변화 과정 속에 트로이 목마가 정부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즉, 저지대와 같은 분쟁 지역 MAS가 더 많은 표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협정과 동맹을 대가로 우파를 정부 권력에 받아들였다. 저지대에서는 민족혁명운동당(MNR), 민족행동당(ADN), 기업인, 지주 등 우파 세력들이 MAS의 기치를 내걸었으나 재선이 가능하도록 하는 표를 던지지는 않았다. 확실한 것은 특히 저지대 지역 MAS를 대표하는 우파는 경제적 이득을 획득할 수 있었다. 갈린도(2016)는 MAS가 우파의 압도적인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정치적 배신행위임을 시사했다.

변화 과정에 침투하지 못한 우파는 한물 간 정치인을 앞세워 미디어 전쟁에 주력했다. 투표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통제할 수 없는 폭력을 조장하며 사회적 비난을 유발했다. 소셜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절차의 진부함 또한 인종주의와 계급주의를 악화시켰다. 야당은 국가 체계를 변화 시키려는 방법으로 택한 권력 순환이 현실적으로는 이미 국가의 일부가 되어버린 신자유주의 정치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 사회는 MAS 내 일인 지도체제, 작은 지도부 내 권력의 영속, 권력과 국가기관 공유 부족, 모랄레스와 리네라의 겸손하지 못한 태도를 비판한다. 이러한 이유로 MAS에 불리했다. MAS가 권력을 잡은 지 10년이 지나도록 지도력 자체는 새로워지지 않은 채 한 지도자는 과대평가되고 결국 내몰리게 되었다. 그가 이 모든 과정을 대표하거나 혹은 모든 것이 위기에 처해있다.

투표결과로 야당은 우파 정당 간의 내부 협력과 통합의 문이 열렸다. 헌법 개정 반대가 결정된 후, 우파는 현재 MAS보다 더 실용적이고 설득력 있는 정책을 구성해야 하며 한 후보로 단일화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선거 결과는 진보 운동의 우파로의 선회와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의 우파 승리와 이어지는 맥락이다. 심각한 문제는 헌법 개정 찬성은 모랄레스 정부에 포함된 우익 권력도 지지한 것이며, 헌법 개정 반대는 모랄레스의 재선을 막아 민영화로의 회귀 움직임에 대한 개방 가능성을 열었다는 것이다. 아르헨티나가 그 좋은 예로, 2만 명 정리해고와 민간 부문을 보호하고 있는 최악의 거시 정책으로 거리 시위가 열리고 있다.

에보 모랄레스는 계속 신자유주의와 맞설 것임을 재차 강조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똑같은 방식으로 싸울 수는 없다. 볼리비아는 이미 개발, 산업화, 투자, 경제 발전 집약시대로 접어들었다. 국제 경제학자들이 지적하듯 “볼리비아가 설명된 것처럼 나쁘다면 빈곤을 줄이고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룬 라틴 아메리카 국가는 어떠한가?”

모랄레스 정부 10년은 볼리비아 역사상 가장 안정적 시기였다. 연평균 5.15% 경제 성장률을 달성했고 경제 안정성으로 전반적인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지난 10년 동안, 슈퍼마켓 소비 600%, 식당 소비 853%가 증가하였다. 볼리비아는 새롭게 태어났다. 볼리비아는 에보 모랄레스가 2006년 정권을 잡은 이후 1,050만 주민 중 260만이 중산층이 되었다. 극 빈층(38.2%) 감소와 최저임금 상승(2005년 440볼리비아노, 2015년 1656볼리비아노)은 주목할 만한 성과이며 이로 인해 구매력도 증가하였다. 이 시기에 1인당 GDP는 1,200달러에서 3,000달러로 상승했다. 국내 생산은 80억에서 330억 달러로 증가하고 연평균 5% 성장률을 보였다. 거의 항상 재정/무역 흑자를 냈으며 외환 보유고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GDP 50%에 달했다.

야당은 높은 유가와 국가 산업 성장이 외국과 경쟁하지 않는 천연 자원 추출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것에 의구심을 표했다. 이는 풍부한 자원으로 벌어들인 많은 수입을 어떻게 써야할지 몰라 결국 거대한 사업, 수입, 부동산 거품에 허비하는 "네덜란드병"이라는 경제 신드롬을 낳는다. 경제공공재무부장관 루이스 아르세는 남미 위기가 볼리비아의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정부는 국내 천연가스 수출의 낮은 가격으로 잃은 수익을 대체하기 위해 중국과 약 7조원의 차관을 체결하였다.

이 시기는 산업 부문도, 심지어 볼리비아가 자급자족 했던 먹거리 부문조차 수입을 대체 할 수 없었으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갔다. 농업을 대형 사업으로 보는 생산주의자 논리로 농산업을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였다.

탄광과 탄화수소 부문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볼리비아가 북반구, 중국, 일본과 이웃 나라에 대한 수출에 관여하고 원주민이 가진 권리를 집중적으로 착취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어머니 지구를 보호한다는 담론에 반하는 다국적 기업이 볼리비아를 계속 지배하게 만들었다. 동시에, 다국적 기업을 선호하고 국제 협력을 꾀하는 환경 시민 단체의 모순된 담론 또한 존재한다.

볼리비아 사례는 자본주의가 분명 사회주의를 집어 삼키려 할 것이므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가 공존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가장 큰 위기는 MAS 정책이 반동 우익을 부추겼다는데 있다. 볼리비아는 개발 재원을 가지고 있으나 발전과 더불어 부패도 성장했다. 이 약점을 극복하는 정치적 프로젝트를 재구성하는 것은 볼리비아의 시급한 임무이다. 사회정책 개발과 국제 자본주의 체계에서 개발된 방법과 다른 중장단기 생산방법을 통한 경제 안정성 보장 없이 자본주의 체제에 적용하고 변화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랄레스와 리네라 정부는 사회 운동의 확고한 담론을 가지고 미시적 수준에서 국제협상까지 존재하고 작용하는 것에 의지하는 정권이다. 볼리비아는 변화에 대한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단점을 가진 나라이다.

2025년까지의 최종 목적은 궁극적인 경제 해방의 시작이다. 지금, 볼리비라을 나락으로 몰았던 발전 모델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

6. 자유무역협정

TPPA 체결, 다음은?

(맨위로)

작성: 송대한 (편집국장, ISC)

번역: 황정은(사무국장, ISC)



2015년 10월 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협상이 끝나고 2016년 2월 4일 뉴질랜드에서 체결되었다. 이제는 각국 국회에서 비준되면 TPPA가 발효된다. 한신대 이해영 교수가 이전 인터뷰에서 말했듯이 TPPA가 발효되려면 참가국의 총 경제규모의 85%에 해당하는 국가가 비준하면 된다. 이는, 미국(57%), 일본(22%), 호주(6%)만 국회 비준이 된다면 발효된다는 것이다. TPPA 참가국 중 최대 경제규모인 미국에서 TPPA 반대 투쟁이 더욱 중요해졌다.

퍼블릭시티즌의 로리 월록은 현재 미국 국회에서 TPPA에 대한 반대 양상은 2017년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설명한다. 차기 대통령이 협정 발효와 관련된 법 집행에 서명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대선이 더욱 중요해졌다. 로리 월록은 대선 후보중에서 지지도가 5%이상 되는 사람들은 모두 TPPA를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버니 샌더스는 분명하게 TPPA를 반대하고 있고 힐러리 클린턴은 미국무부장관 당시 지지했던 것과는 다르게 현재 반대하고 나섰다. 하지만 월록은 대통령 후보일 때는 반대할지 몰라도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면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현재는 협정을 국회로 보내지도 법으로 제정하지도 않겠다는 공약을 받아내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단 TPPA가 발효된다면 다른 국가들도 협정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TPPA 반대 투쟁은 현재 참가국에게도 중요하지만 향후 참가하게 되는 국가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한국 정부는 TPPA

참가에 관심을 표명한 상태이다.

7. 전문번역

거대한 자본주의의 전환기- 맑시즘과 “기후가 아니라 시스템 변화를” 3부

(맨위로)

존 벨라미 포스터

번역: 황정은(사무국장, ISC)



맑시즘과 거대한 자본주의의 전환기

이것이 비판 이론이 뚫고 나갈 근거가 되는데, 맑스 이론의 과학혁명을 사적유물론의 토대까지 이르게 한다. 이를 통해서 오늘날 자본주의의 거대한 전환기에 직면하여 요구되는 생태 혁명과 과학혁명의 다섯가지 결론을 유도해낼 수 있다.

첫째, 세계 환경을 위협하는 문제는 추상적인 경제 성장만이 아니라 독점금융자본의 현 단계에서 자본의 축적이다. 즉, 양적 개발만이 아니라 자연의 질적 개발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이는 경제적이고 생태적인 낭비를 부추겨 축적을 자극하는 자본주의의 독점금융단계와 연계된 생태적 가치 형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오늘날 부유한 국가에서는 발전이 진행되었고, 국민의 물질적인 요구는 충족되었으며, 질적인 인간 발전이 강조된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지속적인 가치 팽창과 상품 소비가 필요하고 결과적으로 에너지와 물질의 처리량은 늘어난다. 오늘날 미국에서 연간 1조달러에 육박하는 판매 활동으로, 환경에 유해한 합성 상품의 형태로 경제 폐기물을 쏟아내며 추진된다. 1960년대 맑스주의 경제학자 폴 배런은 “독점자본주의 문화에 폭 빠진 사람들은 그들이 필요한 것을 원하지 않으며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썼다. 축적을 부추기는 군사 폐기물을 포함해 엄청난 폐기물 시스템에 더해서, 금융화된 상부구조는

0.01%의 상위층으로 부의 이동을 가속화시켰다. 신용과 부채 시스템으로 나타난 새로운 금융 구조는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다. 이는 인위적으로 활성화된 성장, 경제적 낭비, 금융화된 부라는 비이성적인 시스템이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실질적인 평등이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엎어버려야 할 극심한 불평등이 존재하는 비이성적인 시스템이다.

지금처럼 부유한 국가에서 경제 성장이 계속된다면 - 상대적인 경기침체의 현 시기의 기준으로 - 전세계적으로 끔찍한 결과를 피할 수 없으며 기후예산이 바닥나는 것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규모의 경제 성장과 우회생산에 적합한 생태적으로 비효율적이고 기술적으로 파괴적인 사회의 경향 - 즉 중국에서 생산한 일회용 손가락을 미국에서 잠깐 사용하고 버리는 이 과정에서 유독한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 이 지구의 생물지구화학 과정을 위협하고 있다. 자본은 사회적 신진대사과정을 자본의 생리에 알맞게 재구성하려고 하며 자연의 한계를 단지 정복해야 할 장애물로 여기면서 신진대사의 균열과 지구 온난화를 초래한다. 이 모든 것이 경제 성장에 한계를 두어야 하고 특히 오늘날 파괴적인 자본주의의 팽창에 한계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자본주의는 현재 경제적이고 환경적인 새시대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과잉 축적, 경기침체, 금융화로 나타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각 생태계와 전지구적 수준에서의 생태적 균열과 붕괴로 나타난다. 이런 두 장기적인 시스템의 구조적 위기는 모두 자본 축적의 논리에서 유발되었다는 점을 빼면 서로 환원 시킬 수 없다. 생태적 위기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가치로 환산될 수 없으며 경제적인 문제와 연계해도 낮은 우선순위가 매겨진다. 끊임없이 경기침체의 해결방법은 온갖 수단으로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즉, 신자유주의적이고 파괴적인 자본주의를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해결책은 -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한 시스템의 힘을 넘어 안정적인 방법이지만 일시적이고 임기응변의 방식으로 - 경제적 질곡의 확장을 줄여야 하는 환경에는 치명적이다. 새시대의 위기와 자본주의 시스템 내의 생태는 자본의 논리가 이어지는 한 간극을 넓히면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목적과 생태적 목적 사이의 충돌은 분석의 모순이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의 모순이다.

셋째, 축적이나 경제 성장이 부유한 국가에서 일시적일지라도 생태적으로 필요해 중단된다면 새로운 재분배 시스템이 필요하다. 1944년 루이스 면포드는 <인간의 조건>에서 “기본적인 공산주의” 조건에서만 정상상태의 경제가 가능하다고 했다. “기본적인 공산주의”는 “생산 기여도나 능력에 따라서가 아닌 필요에 의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설명하기 위해 면포드가 맑스 이후에 쓴 용어이다. 이런 사회에서는 이윤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생산의 질곡에 반대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진정한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회적 잉여를 재분배 한다. 이는 교환가치보다는 사용가치에 따른 사회를 구성해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자원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에피쿠르스가 말했고 맑스가 동의했듯이 충분함의 원리에 따르는 사회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즉, 모두에게 적용가능한 인간 필요의 풍만한 발전을 통해서 재구성되어야 한다.

넷째, 맑스는 지속가능한 인간 발전의 한 요소로 사회주의 모델을 말했다. 거대한 자본주의의 전환기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과학과 공동체의 가치에 따라 행동하는 연합생산자에게로 힘이 이동해야 하며, 자연과 사회의 복잡하고 상호의존적인 신진대사를 인간 필요에 따라 지구의 신진대사에 필요한 것에 맞춰 규제해야 한다. 현재의 맥락에서는 맑스가 말한 신진대사의 균열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인간-자연 신진대사의 “회복”이 필요하다. “신진대사의 회복” 원리를 논하는데 있어서 델 웨스턴은 <지구온난화의 정치경제학>이라는 저서에서 “필요성은 신진대사 주기 - 생산, 소비, 폐기- 내에서 살기 위해 인간 사회를 위한 것이다. 또한 새로운 경제에서는 태양 에너지가 새로운 투입재가 되어 자급자족 주기의 일부를 형성하는 것은 부의 궁극적인 원천으로 인정될 것이다”라고 썼다. 더구나 현재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새로운 경제, 지구와 새로운 생태적 관계, 태양 에너지 내에서 존재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기반시설을 만들기 위해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동시에 맴포드의 “기본적인 공산주의”나 필요의 원칙에 기반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다섯째, 예기했던 혁명적 변화는 인간의 힘으로만 만들 수 있다. 생태적이고 사회적인 혁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널리 인정받지만 한 가지 문제가 남는다. 언제 누가 이러한 혁명을 일으킬 것인가? 생태주의적 맑스주의자는 초기 단계의 “환경프롤레타리아” 즉, 존재의 위기를 느껴 경제와 생태 조건의 불가분의 관계를 인식한 노동자 계급이 일어나는 징후가 보인다고 말한다.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강등된 물질적 조건과 경제적, 생태적 위기를 일상적으로 느끼고 전반 삶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 기본적으로 경제적, 생태적 위기는 거의 구별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식량 위기, 토지 약탈, 전력 공급 정지, 물 민영화, 오염 심화, 파괴되는 도시, 후퇴하는 공공의료, 억압받는 사람들에 대한 폭력 증가가 불평등, 경기침체, 실업률 증가 등과 함께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남아프리카에서는 계급투쟁이 경제 투쟁만큼이나 환경적이다. 즉 환경 노동계급 출현의 징후가 보인다. 논리적인 결과는 시스템에 대항해 물리적인 봉기가 일어날 것이다. 이는 데이비드 하비가 말한 “공동 혁명” 투쟁이다. 이는 세계적인 환경/기후정의 운동에서 두드러지며 나오미 클레인이 “블랙카디아”(화석연료 산업에 저항하기 위해서 국경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일선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투쟁하는 것을 의미한다_역주)라고 부른 급진적인 직접행동운동에서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전통적인 노동자 계급 정치학은 환경 운동, 유색 인종, 여성 운동, 그리고 사회 전반에서 기본적이고 재생산적인 투쟁과 연합하고 함께 진화한다. 이런 생태적 사회적 투쟁은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 계층으로부터 힘이 유입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혁명적이다. 즉 이들은 제3세계 노동자, 여성 노동 계급, 제국주의 중심부에 살고 있는 유색 인종, 원주민, 소농과 무토지 농업 노동자, 새로운 형태의 성, 가족, 공동체 건설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 어디서든 고도로 착취 당하고 가진 것을 빼앗기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혁명적인 투쟁은 두 단계로 일어나야 한다. 첫 단계는 생태민주주의로 폭넓은 연합을 구성하기 위해 지배자의 이해관계 외부에 있는 대다수가 비인간적인 조건에서 지속가능한 인간 발전의 사회를 요구하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는 더욱 결정적인 두번째 단계, 혁명적인 투쟁의 생태사회주의 단계를 위한 토대를 형성할 것이다. 이는 실질적인 평등, 생태적인 지속가능성, 집단적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말한다. 이는 고전적인 맑스의 생태 평론이 현대의 혁명적인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생태민주주의 단계의 목표는 자본의 파괴적인 논리를 저지하는 급진적 개혁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는 급진적이고 심지어 혁명적인 변화를 위한 싸움으로 자본의 논리를 거스르고 현재의 맥락에서 구체적이고 의미있는 투쟁의 형태로 가능한 변화를 말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포함된다.

- (1) 선진국에서 연간 8~10%의 탄소 배출 감축 계획
- (2) 경제 성장 중단과 소득과 부의 급진적인 재분배, 자원 보존, 배급, 경제적 낭비의 감축 시행
- (3) 보편적으로 “국방비”라고 불리는 군비를 환경보호 비용으로 전용
- (4) 태양 예산 범위 내에서 고안된 대안적인 에너지 사회 기반 시설 건설
- (5) 화력 발전소 폐쇄와 타르샌드 오일과 같은 새로운 화석 연료 사용 저지
- (6) 이익의 100%를 일인당 기준으로 모두에게 재분배할 한센이 제안한 탄소비와 배당금 시스템
- (7) 신흥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 국제적 계획
- (8) 유색인종, 빈곤층, 여성, 원주민 제3세계 국민들이 기후 변화의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회 전반에서 환경정의 원칙의 시행과 이를 기후변화(완전하게 멈출 수 없음) 적응과 연결
- (9) 2010년 볼리비아 코차밤바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민중협정에서 제안된 모델의 기후 협상과 정책 채택

이러한 급진적인 변화의 제안은 늘어날 수 있으며 사회 전반에 그리고 개별 인간 발전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생태민주주의 발전 단계의 법칙은 현재 세계가 처한 생태적이고 경제적인 새시대의 위기를 다뤄야 하며 세계를 점점 더 재앙으로 이끄는 평상시의 논리에 반하는 방식으로 행해져야 한다.

투쟁의 생태민주주의 단계의 논리가 완전하게 시행된다면 생태사회주의 단계를 향한 토대가 형성될 것이다. 민중은 스스로를 대변해 동원하고, 그것으로 생기는 문화적이고 경제적인 변화는 능력과 필요에 따른 사회 구성에 추동력을 줄 것이다. 사회적 신진대사의 재생산 시스템은 현재와 미래 세대뿐만 아니라 지구 시스템 자체와 다양한 생물종을 고려해 더욱 공산주의적인 기반으로 재구성될 것이다. 필수적인 사회적 생태적 계획은 지역적 필요성과 지역 공동체로부터 시작할 것이며 이러한 필요성과 연계해 조정과 실행을 맡은 더 큰 정치적-행정적 기구와 통합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는 민중에 의한, 연합된 생산자에 의한 사회라는 점에서 고전적인 의미의 민주적이다. 이 사회에서는 맑스가 말했듯이 “사회화된 인간, 연합된 생산자가 이성적인 방식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인간의 신진대사를 통제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최소한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인간의 본성을 위해 가장 가치있고 적합한 조건에서 이를 것이다” 19세기 맑스에게는 이것이 인간 해방을 위한 투쟁이었다면 21세기에는 인간의 해방과 인간 생존을 위한 투쟁이다.

1980년 영국의 맑스주의 역사학자 E.P. 톰슨은 뉴레프트리뷰에 <절멸주의에 대한 기록, 문명의 마지막 단계>라는 경고성 글을 실었다. 이 글에서 톰슨은 특히 핵무기 개발과 냉전의 최종 단계에서 핵 교환으로 세계적인 학살의 위험을 겨냥했지만 톰슨의 주장은 시스템에 의한 생태 파괴의 영역과도 관련되어 있었다. 루돌프 바로는 <사회적이고 생태적인 재앙 회피>에서 톰슨의 주장에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맑스주의에서 절멸주의 주장을 표명하기 위해 생산력과 파괴력의 관계가 뒤집혔다고 말할 수 있다. 맑스는 그것을 관통하는 핏자국을 목격했고 ‘문명이 남긴 사막’을 보았다.” 오늘날 이렇듯 생태적으로 파괴적인 추세는 자본주의의 “창조적 파괴”가 류와 모든 생명을 위협에 빠뜨리는 파괴적인 창조력으로 전환되면서 전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멤포드는 <인간의 조건>에서 “외부 세계의 정복에만 에너지를 집중시켜 자신을 신처럼 만들 수 있다는 꿈은 속이 사악하고 가장 허무한 꿈이 되었다”라고 썼다. 결과는 절멸주의의 경제학과 같은 것이다. 오늘날 지구상의 전쟁은 자본 축적을 종식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맞서고 있다. 자본주의 시스템의 편협한 가치 계산에서는 지구 자체의 한계는 보이지 않는다. 거대한 자본주의의 전환기에서 우리는 이런 절멸주의 경제학에서 방향을 돌려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번 인류에서 이를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본주의와 함께 사라질 것이 분명하다. 20세기 현실서를 지키려고 했던 자들의 예언은 사실이 될 것이다. 자본주의는 문명을, 인간의 존재조차도 말살하며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할 것이다.

거대한 자본주의의 전환기는 우리에게 한가지 선택지만을 남겨주었다. 기후변화가 아닌 시스템 변화를!

원문출처: <http://monthlyreview.org/2015/11/01/the-great-capitalist-climacteric/>

8. 국제뉴스

프랑스아 올랑드, 자클린 소바주¹³를 사면하다¹⁴

(맨위로)

번역: 정성미(국제팀, ISC)



(출처: Le Huffington Post)

1월 31일 일요일에 엘리제궁은 프랑스아 올랑드가 자클린 소바주에게 형에 대한 “관대 한 사면”과 그녀가 “가석방 신청서를 즉각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에 동의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폭력 남편을 살해하여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클린 소바주 사건은 많은 사람들을 급속도로 결집시켰다. 사회당 소속 파리 시장인 안느 이달고, 환경운동가인 다니엘 곤-벤디와 좌파 정당의 대변인인 장-뤽 멜랑송 같은 이들이 참가한 그녀를 지지하는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녀를 위해 서명한 사람들은 이 60대 여성이 그녀의 아이들과 같이 “47년 동안 반복적인 강간과 극단적으로 저질러진 가정 폭력의 희생자”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희생자들을 마땅히 보호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책임”을 강조했다.

¹³ 자클린 소바주는 2012년 9월 10일 47년 동안 자신과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남편 노르베 마로의 등에 세 발의 총을 쏘 살해하였다. 그녀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아 2014년 10월 28일 10년 형을 받았다. 이에 상소하였으나 2015년 10월 3일 10년 형이 확정되었다.

¹⁴ "Jacqueline Sauvage gracieé par Franois Hollande", AFP, Huffington Post 2016년 1월 31일 인터넷 기사

“2년 4개월”의 감형이 소바주 부인이 마쳐야 하는 쉬르테 기간 전체에 부과된 것임을 명확하게 밝히면서 “한 인간이 처한 이례적인 상황에 직면하여 공화국의 대통령은 소바주 부인이 가능한 빨리 그녀의 가족 곁으로 돌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를 원한다.”고 일요일에 말했다.

“4월 중순 가석방”

자클린 소바주의 변호사들이 어머니가 4월 중순 가석방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알려주자 그녀의 딸들은 열광했다.

“오늘 저녁 8시에 엘리제궁에서의 새로운 담화 후에 프랑수아 올랑드는 우리 의뢰인에게 부분적인 대통령 사면을 내릴 것이라고 알려줬어요.” AFP의 통신원에게 읽어준 공식 발표문에서 변호사들이 설명했다.

“법령에 의해 5년의 쉬르테 형을 조정하면서, 그는 2년 4개월을 감형했어요. 이것은 쉬르테 형¹⁵이라는 장애물을 뛰어넘어 자클린 소바주가 2016년 4월 중순에 가석방 될 수 있게 대통령이 허용한 것을 뜻해요.”라고 변호사들은 말했다.

“우리는 자클린 소바주의 딸들에게 이 기쁜 결정과 그들의 어머니가 나올 수 있는 날을 알려줬어요. 그들은 대통령이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기뻐했고 행복해 했어요. 그는 지난 금요일에 그가 한 말을 지켰어요.”라고 변호사들은 밝혔다.

43만 5천 명 이상이 서명한 청원

자신과 아이들에 대한 성적 학대와 구타가 행해진 가정폭력이라는 지옥의 세월을 겪은 후, 2012년 총 세 발을 등에 쏘서 자신의 남편을 죽인 것을 인정한 66세의 자클린 소바주에게 지난 12월 4일 열린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루아르-에-셰르 중죄(重罪) 법원은 10년의 징역형을 확정지었다.

자클린 소바주의 세 딸들은 프랑수아 올랑드에게 사면 청원서를 보냈다. “대통령 각하, 우리 어머니는 부부로서의 긴 삶 동안 폭력적이고, 전제적이고, 사악하고, 근친상간의 죄를 지은 남자인 우리 아버지에 의한 지배의 희생자로 고통을 겪었습니다.”라고 그들은 썼다.

¹⁵ la période de sûreté. 프랑스 형법체계에 있는 제도로 징역이나 금고형에서 수정이 불가능한 기간이다. 자클린 소바주는 5년의 쉬르테 기간을 받아 가까운 시일 내의 가석방이 불가능했으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쉬르테 기간의 2년 4개월을 감형함으로써 2016년 4월 중순의 가석방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들은 15만 명(1월 31일 일요일에는 43만 5천명 이상에 근접했다.) 이상의 서명을 얻어낸 탄원서와 약 100명의 예술가들이 참여한 지지 위원회의 서명이 담긴 글을 그들의 청원서에 첨부했다.

특히 여배우 아니 뒤프레이의 호소는 잘 알려졌다. “확실히, 그녀는 살인을 했다. 중요한 것은 무죄석방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겪은 일들에 비추어 생각하는 것이고, 그 모든 일들을 겪은 후에 10년을 더 갇혀있어야 한다는 것이 완전히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이다.”라고 그 여배우는 말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은 정당방위이다.”

지지 위원회의 서명된 글은 “올해 134명의 여성이 저항하지 못한 채 그들의 동반자의 공격으로 죽었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그녀의 아이들처럼 그녀가 47년간 일상적으로 맞고 협박당하면서 죽음의 위험 속에 있었다.”고 밝혔다.

국가의 수장은 금요일 엘리제궁에서 자클린 소바주의 세 딸들과 그들의 변호사들을 맞이했다. “그는 오랫동안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주말에 깊이 생각할 시간을 갖기로 정했어요. 그는 법무장관과 의논했고, 수사와 의견을 주고받았어요. 그는 자신의 결정을 알리기 위해 자클린 소바주의 변호사들을 이번 일요일 오후 6시에 새로 맞이했어요.”라고 올랑드의 측근이 AFP에 알렸다.

헌법 17조는 공화국의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2008년부터는 오직 개인적인 자격으로)을 허용한다. 그러나 프랑수아 올랑드의 측근은 그가 원칙적으로 대통령 사면에 긍정적이지 않다고 최근 밝혔다. 그는 단지 한번만 사면권을 행사했다. 그것은 2014년 1월 프랑스의 가장 오래된 수감자인 필리프 엘 세노이의 형을 소멸시키지 않고 가석방을 허용하면서였다.

원문출처:

[http://www.huffingtonpost.fr/2016/01/24/jacqueline-sauvage-anne-hidalgo-paris_n_9063946.htm](http://www.huffingtonpost.fr/2016/01/24/jacqueline-sauvage-anne-hidalgo-paris_n_9063946.html)
|

9. ISC 소식

(맨위로)

남미연구모임: 볼리비아-칠레 영토분쟁



2월 남미연구모임은 주한볼리비아 대사관과의 간담회로 진행했습니다. 과달루페 팔로메케 주한볼리비아다민족국가 대사는 과거 볼리비아가 바다의 접근권을 가지고 있었고 1879년 칠레와의 태평양 전쟁에 패하면서 내륙 국가가 되었음을 설명했습니다. 그 이후 칠레와 볼리비아는 해양주권을 놓고 협상을 해왔으며, 칠레는 여러번의 걸쳐 볼리비아의 해양주권과 관련한 협상을 약속했으나 현재 두 국가는 외교가 단절된 상태입니다. 이에 볼리비아는 2013년 국제사법재판소에 볼리비아가 태평양 진출 주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볼리비아와 칠레가 합의에 도달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칠레가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요구하며 제소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볼리비아와 칠레 간의 영토분쟁에 대한 관할권이 있으며 올해 7월까지 칠레가 자국의 입장을 밝히도록 요구한 상태입니다. 미국,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스페인 등의 전현직 대통령이 볼리비아의 입장을 지지했으며 안데스지역통합, 미주기구, 미주대륙을 위한 볼리바르 동맹 등 국제기구들도 볼리비아의 입장에 지지를 표했습니다. 3월 23일은 볼리비아 바다의 날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각국 지도자나 시민단체로부터 지지 서한을 모으고 있습니다.